

성 평등과 양성평등



제양규 (한동대학교 교수)

카이스트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한국기계연구원 실장을 역임했다. 현재 한동대학교 기계제어공학부 교수이며 동성혼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 중앙실행위원이다.

성 평등은 양성평등과 다르다.

2017년 국회 개헌특위의 개헌 논의 과정에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현행 헌법 속에 있는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성 평등을 신설하고자 하였다. 또 이러한 개헌에 대하여 국민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는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해 성 평등 항목을 신설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라고 물었다.

마치 성 평등이 양성평등과 같은 의미인 것처럼 묻고 있다. 만약 성 평등이 양성평등과 같은 말이라면 굳이 양성평등을 없애고 성 평등을 신설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평등이 마치 양성평등과 같은 말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현행 헌법 속의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성 평등을 신설하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었다. 결국 그러한 거짓말은 금방 들통이 나고 말았고, 강력한 국민적 반대에 부딪혔다. 마침내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2018년 1월에 자문위의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양성평등은 sex equality로서 '남과 여'라는 생물학적 차이(선천적)에서 발생한 불평등 문제이며, 성 평등은 gender equality로서 사회 역사적(구조, 환경, 문화)으로 형성된 차이(후천적)에서 발생한 불평등 문제라고 그 차이점에 대하여 분명히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017년 12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소수자들까지 포괄하는 '성 평등'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2015년 6월 대전광역시 성소수자 인권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항을 담은 '성 평등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자, 여성가족부는 이 조항이 담고 있는 "성소수자와 관련된 개념이나 정책은 양성평등법의 입법 취지를 벗어났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대전시는 2015년 9월 '성 평등 조례'를 '양성평등 조례'로 이름을 바꾸어

개정하였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보고서에서 밝힌 것처럼 양성평등은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 간의 평등을 의미하고, 성 평등은 사람이 태어난 이후 마음으로 정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성(젠더) 정체성 간의 평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성 평등은 양성평등과 전혀 다른 개념이다. 만약 양성평등 대신에 성 평등이 합법화된다면 동성애와 동성 결혼이 당연히 합법화될 수밖에 없다.

젠더 이데올로기와 성 혁명

젠더 이데올로기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생물학적 성(sex)에 의해 사람의 성별을 구분하는 것을 거부한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적 차이에 의해서 성별이 결정되는 것을 거부하고, 대신 사람이 살면서 자신의 성을 남성과 여성 이외 50가지 이상의 다양한 성(젠더) 가운데 스스로 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성에 따르면 신체적으로는 비록 남자이지만, 여성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아침에는 남자이다가 저녁에는 여성일 수도 있고, 1/3은 남자이고 2/3는 여자인 성도 가능하다. 생물학적 성(sex)이 아니라 사회적 성(젠더)에 의해 사람의 성별을 구분한다면, 동성애와 동성 결혼 등 다양한 관계와 결합이 합법화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두 사람 모두 신체적으로는 남자이지만, 사회적 성으로는 한 사람은 남성, 다른 한 사람이 여성이라면, 이성 간의 결합이 된다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생물학적 기준에 따라 사람의 성별을 구분하는 현재의 사회 구조를 사회적 성의 기준에 따라 성별을 구분하도록 법과 제도에 의해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것을

성 혁명이라 한다. 지금 전 세계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성 혁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성 혁명은 왕정 체제를 공화정 체제로 바꾼 프랑스 대혁명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를 공산주의 체제로 바꾼 볼셰비키 혁명과 함께 사회체제를 바꾸는 3대 혁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젠더 이데올로기와 페미니즘, 그리고 정치

필자는 2017년 개헌 논의 가운데 성 평등을 주장하는 주요 단체들이 대부분 여성 단체라는 사실에 많이 놀랐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여성 단체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성 평등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한국여성단체연합, YWCA, 여성의 전화, 젠더법학회 등 여성들이 중심이 된 단체들이 몇 년 전부터 성 평등 개헌을 치밀하게 준비해 온 것을 발견하고 처음에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또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소위 진보 정치인들과 정당들도 성 평등을 적극 주장하였다. 성 평등을 주장하는 일부 여성 단체들은 남녀 차별 문제는 신체적인 차이에 따라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현 체제 안에서는 절대 해소될 수 없고,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사회적 성에 의해 성별을 구분하는 사회가 되어야 남녀 차별 문제의 해결이 근본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 평등 사회의 모습

양성평등이 삭제되고 성 평등이 합법화된 사회가 되면 과연 남녀 차별의 문제가 해결될까? 성 평등이 합법화된 사회에서는 과연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

첫째는 남녀 구분이 없는 사회가 된다. 50가지 이상의 성이 된다는 것은 성이 없는 것과 같은 말이

다. 생물학적 성(sex)으로는 남자이지만, 사회적 성(젠더)이 여자인 경우에는 여성 화장실과 여성 탈의실을 사용할 수 있고 여성 운동경기에도 참가할 수 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경우 오히려 생물학적 여성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다. 또 남편과 아내, 소년(boy)과 소녀(girl), 신사와 숙녀, 아버지와 어머니 등의 남성과 여성이 전제되는 단어의 사용이 금지되고 성 중립적 단어가 사용된다. 실제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공식 문서에 아빠, 엄마 대신에 parent 1, parent 2 등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부일처 중심의 가정은 깨어지고, 동성 결혼은 물론, 다부다처의 가정도 합법화될 것이다. 엄마와 아빠가 중심이 되는 가정은 깨어지고, 남녀 기반의 성 윤리와 도덕은 파괴될 것이다. 젠더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인 주디스 버틀러는 소아성애, 근친애 등의 합법화를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둘째, 동성애와 성 평등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양심과 표현, 학문의 자유는 크게 제약을 받게 된다. 사회적 성을 반대하면, 혐오와 차별이 된다. 사회적 성과 동성애 등을 반대하는 어떠한 학술적 연구도 제약을 받게 된다. 최근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63%가 동성혼을 반대하고 있고, 동성애를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동성애와 동성혼이 합법화되면 다수의 이들은 어떤 반대도 할 수 없게 된다.

셋째, 천부적 인권 대신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왜곡된 인권이 모든 판단의 기초가 될 것이다. 생물학적 성 대신에 사회적 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당연히 차별금지법과 혐오표현 방지법 등이 제정되어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반대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며, 어린아이들은 학교에서의 의무적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해 배우게 될 것

이다.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치는 성경은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불법 책이 될 것이며, 동성 간의 혼인 예배가 교회 안에서 행해지게 될 것이다. 기독교의 선교는 타 종교를 무시하는 것이 되어 금지될 것이며,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 자녀들을 위한 반동성애 교육은 금지될 것이다.

종교적 자유의 침해

기독교인들에게, 특히 기독 지성인들에게 동성애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의 하나는, ‘동성애는 여러 가지 죄 중의 하나일 뿐인데, 기독교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은 접어두고, 유독 동성애만 가지고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 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주장이다.

동성애가 여러 가지 죄 중의 하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동성애는 다른 죄와는 달리, 동성애가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동성애를 정당하고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사람을 처벌하려 한다. 이러한 동성애 독재 앞에서 성경도 잠잠해야 한다. 만약 전도를 하게 되면, 종교적 괴롭힘으로 처벌받게 되고, 기독교적 교육을 위해 설립된 학교도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칠 수 없게 된다. 더 나아가 예배시간 설교 가운데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 없게 되며, 동성애자들의 결혼 예배를 거부할 경우 혐오와 차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기독교를 자신들의 이념 구현에 가장 큰 장애물로 간주하고 있다.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동성애가 종교적 자유에 심각하게 도전하는 것에 대하여 기독교인 스스로 동성애의 주장에 설득되어 잠잠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죽기까지 각오하며 강력히 저항해야 할 것이다. 